

가정의 달
아버지 주일
믿음성장과 신앙성숙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생기야 사망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성
점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이사야 50:4-9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199장 - 나의 사랑하는 책
(통일찬송 234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홍정임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579장 - 어머니의 넓은 사랑
(통일찬송 304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갈라디아서 4:21-31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오늘은 **Mother’s Day, 아버지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3. **믿음성장**과 **신앙성숙**의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4. **야외 친교** 예배 후 자녀들과 함께 **Trinity 신학교 Park**에서 점심친교를 가집니다.
5. **주일예배** 예배를 CDC 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 과 CUMC 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6. **2세 신앙교육** E-Learning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7.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8.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 시)에 참여합시다.
9.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5월의 사역 - 아버지 주일/Mother’s Day(9), 믿음 성장과 성숙 주간(9-15),
세상의 소금과 빛된 주간(16-22), 선교 주간(23-29), 선교 주일(30)

♥ 생일 축하 ♥ 구민(8) 김진숙(17) 구민우(16) 최내권(2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5/9	5/16	5/23	5/30
	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	최선윤집사	최내권집사
주일헌금위원	5/9	5/16	5/23	5/30
	유덕하집사/홍정임집사		홍현근집사/최선윤집사	
주일안내위원	5월			
	구민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 이사야 49:8-17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이나 환경 혹 타인 때문에 어려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이의 반응은 천지차이이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며 일하시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샘물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참된 만족을 주시어 결국 회복시키신다. 또한, 하나님은 대로를 놓으시며, 장애물을 넘어가게 능력을 주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영적으로 성장한다.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대로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 이사야 50:4-9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모습을 정리하자.

첫째, 하나님의 일을 하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셋째,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칭찬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 이사야 50:4-9

아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종이 가져야 할 품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말씀만을 전했다. 핍박을 당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만을 외쳤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을 전했다. 이런 고백과 순종은 메시아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바른 길을 걷게 된다. 진정한 도움이 된다.

둘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땅에 오신 것으로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다. 순종의 완벽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한다. 말씀을 읽는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묵상해한다.

셋째, 하나님의 종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6-7절은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을 설명한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도 맡긴다.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이 예언의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은 일차적으로는 이사야 자신의 모습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예언이다. 또한 2천년 신약교회 역사 내내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이겨낼 힘도 주신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었다.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사역과 수난, 그리고 부활과 영광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 세상의 기준에는 그저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경우여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생의 끝에는 승리가 있고 찬란한 영광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하는 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순종과 내려놓음과 고난 극복의 길이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4가지 비결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처와 같은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일까? 바로 가정이다. 가정이 안식처가 되려면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자녀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만 한다.

한마디로 부모도, 자녀도 머물고 싶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언쟁이나 싸움이 중단되어야 함을 잊지 말자!

1.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화해하라

집안에 싸움이 자주 있으면 먹을 것이 있어도 들어가고 싶지 않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 자체를 내지 말라 하시지는 않았다. 삶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분이든 하루해를 넘겨서 분을 가슴속에 품고 잠자리에 들어서면 안 된다고 하셨다.

가정 구성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족이라면 내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는 서로를 향한 높은 신뢰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과 높은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가족들 간에 자존심을 내세운다면 서로 간에 골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말씀에 기준을 두는 것은 내 삶을 행복하게 한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분노를 털어 버리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은 물론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2. 서로를 향한 믿음을 절대 고수하라

‘잔소리’의 정의는 ‘좋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얼굴 표정과 어감을 제외하고서 하나하나 곱씹어 생각해 보면 좋은 말만 반복한 것이다.

비록 좋은 말을 나열해 반복한 것이지만 잔소리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강함으로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다.

왜 반복하는가? 왜 좋은 말을 강하게 할까? 힘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라. “자녀에게 30분 권면해야 한다면 먼저 그 자녀만을 위해서 30분 기도하고 나서 권면하리라.” 쉽지 않지만 실천해 보라.

3. 서로를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라

우리의 삶에서 왜 언쟁을 하는가? 상대가 내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하니 답답해서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다.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상처가 나 버린 마음을 다 아신다.

사람에 대한 상처, 가난에 대한 상처, 인정받지 못한 상처, 버림받은 상처 등을 다 아시고 공감해주신다.

4. 마음을 여는 대화법으로 대화하라

자녀와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능숙함이 필요하다. 능숙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추궁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는 네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 등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고, 일반화하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평생 한 번도 나에게 헌신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아도, 조금만 마음을 돌이켜 결단해도 믿고 기뻐하며 반응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인내와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크리스천을 위한 행복한 인생학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2-3)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마 10:24)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골 12:10)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2-3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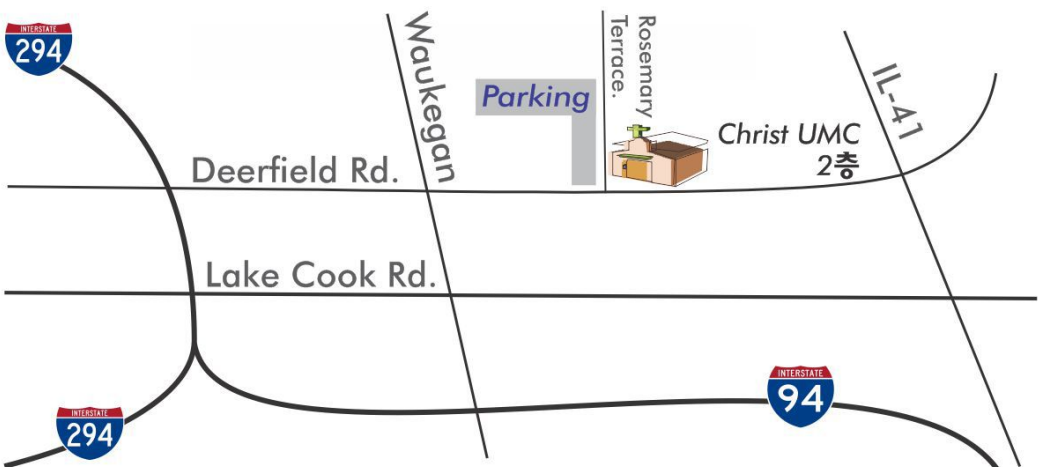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